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⑪

〈지난호에 이어〉

미국 수출의 호조

한편 나는 1976년 5월 미국 발스비 씨와 맺은 수출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처음으로 내보내는 기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 중인 창원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볼 때 조금도 하자가 없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1976년 9월 미국에서 주문받은 화천타입의 범용선반 435형과 520형을 각각 5대씩 만들어서 미국에 처녀 수출할 수 있었다. 이후 3개월 만에 발스비 씨에게서 한 장의 전문이 날아왔다. 그 내용인즉 '화천에서 보낸 선반이 값도 쌀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일본 모리세끼 제품에 못지 않으니 앞으로 매월 10대씩 구입하겠다'는 낭보였다.

1977년 20여만 달러이던 화천의 수출실적은 1978년 15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1979년 500여만 달러, 1980년 700여만 달러로 급신장하였다.

경영체제의 확대 전문화 추진

1073년부터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철강,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가 전략산업들에 대한 전문계열화를 추진하였다. 우리 화천도 그동안 '합명회사 화천기공' 한 회사 내의 개별 부서로 있던 주물, 척, 기어 등을 따로따로 떼어내 전문화된 독립회사로 분가시키게 되었다.

우선 1977년 10월 주물부문을 독립시켜 곧 본격 가동에 들어갈 창원공장과 국내의 공작기계 업체들에게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화천금속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큰아들 영렬이를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설립과 함께 화천금속은 주물제조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영국 미에나이트(Meehanite)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1978년 9월부터 1979년 초까지 독일 EKMAN사로부터 최신 No-Bake라인을 비롯한 주물생산 기계화 시설을 도입 설치하였다. 이 기계화 시설의 가동으로 화천금속의 연간 주물 생산량은 4,000톤에서 7,200톤으로 늘어나 국내 굴지의 현대식 주물 메이커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7년 11월에는 공작기계의 필수부품으로서 증가일로에 있던 국내 척 수요 추세에 부응하고자 '화천척공업주식회사'를 설립시켜 동생 승만이에게 대표를 맡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978년 2월에는 공작기계의 핵심부품인 기어 생산을 전문화하기 위해 '화천기어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은행 업무부장을 지낸 하훈 씨에게 경영을 맡겼다. 화천기어는 설립 후 약 10개월 만에 별도의 새 공장을 마련하고 기존 화천기공사에 있던 장비 외에 20여 종의 최신 기계를 도입해 설치함으로써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공 정밀도에서도 국내 최고의 기어 전문메이커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1978년 3월에는 1975년 다키사와와의 합작추진을 위해 설립했다가 합작실패 후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화천기계공업주식회사'의 자본금을 6억 원으로 증자하는 등 재정비한 뒤 준공을 앞둔 창원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창원공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1978년 무렵 화천은 모기업 화천기공사를 중심으로 화천기계, 화천금속, 화천척, 화천기어 등 5개 회사로 이루어진 그룹체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무렵 화천의 전체 종업원은 1,000여 명을 헤아리는 대식구로 늘어났다. 화천의 계열기업들은 1978년 6월 13일 상공부로부터 금속공작기계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투자기금 등 금융상의 혜택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년여 사이에 이루어진 5개 회사로의 경영체제 확대는 얼만 안 가 경상비 과다지출을 초래했다. 그리고 때마침 들이닥친 제2차 오일쇼크와 국내 정치상황의 급변으로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각사 모두 심한 경영난과 함께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판매는 안 되고 빚만 눈덩이처럼

창원공장이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완공을 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여기에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았다. 공사를 시작할 때 예상했던 투자비의 두 배 이상이 들다보니 심한 경영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까지 잘해온 것처럼 주문이 밀리고 자금회전만 된다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경영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했다. 이런 나의 희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1978년 하반기부터 기계 주문이 점차 줄어드는가 싶더니만 1979년에 들어와서는 아예 뚝 끊기다시피 하였다.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그동안 일선 판매점에 내보낸 기계마저 잘 팔리지가 않았다. 공장에는 재고만 쌓여갔다. 화천기공 1개 회사에서 5개 회사로 확장을 한 결과로 늘어난 경상비 지출 규모 또한 회사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79년 3월부터 직원들의 봉급을 제날짜에 못 주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무렵 화천 5개 회사의 조업원은 1,300여 명이었다. 이들 종업원들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급료는 3억여 원이었다. 경상비 7~8억 원을 합칠 경우 매월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했다. 그런데 화천이 제품을 팔아 거둬들이는 자금은 잘해야 5~6억 원에 불과했다. 매월 4~5억 원의 적자가 생긴 것이다.

다시 화천 전사(全社)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간부들은 백지사표를 제출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모두들 머리띠를 동여매고 비장한 각오로 일하자고 결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각오로 나아질 상황이 아니었다. 1980년대를 기다리며 가졌던 희망은 이제 절박한 위기감으로 바뀌었다.

적금 해약만이라도 해 주오

이때 모(母)기업인 화천기공 이하 5개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때마다 적금 계약을 맺고 불입해 온 돈이 14억 정도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다. 나는 이 적금을 해약해서 우선 악성 사채만이라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1979년 10월 초순의 일이었다. 긴급자금 지원 요청서를 공화당 의장과 상공부 장관에게도 보냈다. 요청서를 갖고 간 직원으로부터 여당 정책위원장이 '적극 협조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듣고 돌아왔다. 나는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갈 것으로 믿고 어디에서건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육인수 의원과 10월 말쯤이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통화도 나누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979년 10월 26일, 청천벽력 같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나는 10월 27일 새벽잠에서 깨어나 뉴스를 통해 박 대통령의 유고 사실을 알고 온몸의 피가 멎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撰園史話 ㉒

(규원사화)

▣ 一沙 權正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人生則 溫而動, 靈能慧明; 人[事](死)則(軀)[躯]殼厥(今)[冷], 骨肉梗固, 腐爛而散滅, 不數年而膚肉不留, 不百年而骨骸莫存. 天地之氣, 聚而爲物 爲質, 散則復爲空 爲氣歟? 靈性發於氣質, [氣質]散亡則靈性亦隨而滅歟? 抑! 天地靈秀之性, 鍾而爲靈, 貞明之氣, 聚而爲體, 沒而靈自不滅耶? 靈旣不(沒)[滅]則返朝于天耶? 悠悠然, 縱遊乎六合耶? 抑! 如佛氏之說, 時墮輪回之苦, 重疊而爲人耶? 觀! 夫蟲蠶卵者, 能知其爲母蛾所産耶? 卵化, 然索餌而走動, 能知其[從爲](爲從)卵而出者耶? 旣成長, 造繭脫毛而爲, 暗眠於其中, 使人觀之, 然樂矣. 雖然, 渠能知其方夢而覺夏之爲耶? 旣滿, 則脫殼爲蛾, 穿繭而出, 翩翩然飛(飛)舞於林, 渠能知其自 而變化者耶? 使人高脫乎其外, 歷觀變化之迹, 則其序瞭然, 曾無毫末之疑. 使蛾自量, 則是個未知從來底一生涯也, 寧知其四變之序耶? 使造翁超脫乎塵外, 達觀乎人生變化之迹, 則是亦若是而已耶?

사람이 살아 있으면 곧 몸은 따뜻하며 움직이게 되고 영혼은 능히 총명하고 밝지만, 사람이 죽으면 곧 몸덩이는 싸늘해져 뼈는 굳어지고 육체는 썩어 문드러져 흩어 없어지게 되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피부나 육체는 남아 있지 않고 백년이 못되어서 뼈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이면 사물의 바탕이 되고 흩어지면 다시금 공허로운 기운이 되는 것인가, 영혼의 본질은 기운이 모습을 갖춘 다음에 그 곳으로부터 생겨나며 그 기운의 모습이 흩어져 없어지면 영혼의 본질 또한 그에 따라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하늘과 땅의 신령스럽고도 빼어난 본질이 모여 영혼이 되고 곧고도 밝은 기운이 뭉쳐 몸이 되는 것이니 몸은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게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곧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인가, 유유히 천지 사방을 떠돈다는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부처의 말처럼 운명에 따라 윤회의 괴로움에 떨어져 거듭되게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인가?

살펴보건대, 무릇 한낱 벌레인 누에의 알이 어미인 나비가 낳음으로 해서 자신이 생겨난 것임을 어찌 능히 알 수 있겠는가? 알이 부화하여 벌레가 되어 꿈틀거리며 먹이를 찾으러 쫓아다니면서 그 자신이 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어찌 능히 알 수 있겠는가? 벌레가 자라서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되어 그 속에서 깊이 잠드니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면서도 즐거워하는데, 그 자신이 곧 잠을 잘 것이라는 것을 어찌 능히 알 것이며, 여름날의 벌레가 그 자신이 곧 고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찌 능히 알 수 있겠는가?

고치가 잠에서 깨어나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 고치를 뚫고 나와 숲속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그 자신이 고치에서 변화하였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사람은 멀찌감치 벗어나 그 밖에 있으면서 변화하는 자취를 낱낱이 보게 되니 그 순서가 분명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다. 나비는 스스로를 헤아린다 하더라도 한 생애를 다하도록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알지를 못하니, 네번이나 변하는 그 순서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조물주는 세상의 바깥에 벗어나 있으면서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자취를 멀리서 두루 바라보면 그 또한 이와 같을 따름이 아니겠는가?

范縝有言曰: [形者神之質, 神者形之用也. 神之於形, 猶利之於刀. 未聞, 刀沒而利尙存, 豈容形亡而神在哉!] 是說眞耶? 儒曰: [魂升而魄降], 佛曰: [靈魂不滅]而涅槃 地獄 輪回 解脫之說, 最繁. 乃檀儉則曰: [功完而朝天, [歸神鄕.] 又曰: [扶萬善, 滅萬惡, 性通功完乃朝天.]] 佛說可耶, 儒說不 耶, (檀)[桓]儉之訓眞耶? 抑! 范縝神滅之論, 乃發前人所未發者耶? [人何由生], 人何由死? 人生自何, 人死歸何? 生是寄也[而]死乃歸耶? 生乃起也[而]死則落耶? 生也有涯而死則無涯耶? 抑! 亦死而後始有, 無限眞善之境耶? 摩利之塹城壇, 則經四千載而健存, 漢南之長城, 歷二千餘歲而猶崇堞屹屹, 慶州之瞻星臺, 過千數百年而尙巍巍然特立. 然(特立然)則, 人之所肩擔手磨, 規矩繩墨之者, 能閱累千載而不滅, 獨, 肩擔手磨, 規矩而繩墨(之)[之]之人生, 則與腐血肉, 盡消永滅於黃沙腐土之中, 不曾精靈之有留耶?

범신(范縝)이 한 말에 이르기를 [모습은 정신의 바탕이요 정신은 모습의 활용이다. 모습에 있어서 정신은 마치 칼에 있어서 날과도 같은 것이니 칼이 없어지고 나서도 날이 남아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어찌 모습이 없어지고 나서도 정신이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이 말이 참된 것인가? 유가에서는 [혼(魂)은 오르고 백(魄)은 내린다] 하였고, 불가에서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하여 열반·지옥·윤회·해탈 등의 말이 가장 많으며,

단군 임금은 이르기를 [맡은 바를 완전히 이루면 하늘에 올라 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였으며, 또한 [모든 착한 것을 북돋우고 모든 악한 것을 소멸시키며, 본성에 통하고 맡은 바를 완전히 이루면 하늘에 오르게 된다] 하였다. 불가의 말이 맞는가, 유가의 말이 충실한 것인가, 단군 임금의 교훈이 진실된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범진의 '정신 소멸론'이 앞선 사람들이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새로운 것을 드러낸 것이란 말인가?

사람은 어찌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사람은 어찌하여 죽는 것인가? 사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삶이란 잠시 의지하는 것이요 죽음이 곧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가? 삶이 바로 본질을 깨워 일으키는 것이고 죽음은 곧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삶이란 것에는 끝이 있지만 죽음에는 곧 끝이 없는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역시 죽고 나서야 비로소 무한한 참된 선의 경계가 있게 되는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아들에게 죽은 송문제의 비극

자치동감 이야기127 제1화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남조 송(宋)의 문제 유의륭(劉義隆)은 재임하는 30년 동안 제도를 올바로 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였으며, 농상(農桑)을 장려하고 부역과 세금을 감면하는 등 나라를 잘 다스린 것으로 이름이 나 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그 스스로가 세웠던 태자에게 죽임을 당한 비극의 인물이 되었다.

사실 유의륭은 아들만 19명을 두었다. 황제에게 아들이 많다는 것은 잘만 하면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왕조시대에 왕족을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왕조를 지켜내는 자산이다. 왕실이 번성하지 못하면 타성이 왕조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왕조가 망하는 일을 역사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러한 점에서 남조 송의 문제 유의륭은 그 자산을 많이 가진 셈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 아들들을 제대로 기르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 갈등의 원천은 당연히 후계자를 두고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는 장남인 유소(劉劭, 424~453)를 황태자로 삼아서 자기의 뒤를 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원가 6년(429년)에 내렸으니, 유소가 5살 때의 일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책읽기를 좋아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도 좋아하여 장래가 기대되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후계를 잘 고른 것 같지만 그가 고른 똑똑한 아들 유소는 자라면서 불안해 졌는지도 모른다. 비록 자기가 태자이긴 하지만 많은 다른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드디어 그가 28세가 되는 해에 무당인 엄도육을 만나고, 또 그의 둘째 동생 유준(劉濬)과 뜻이 맞아서 황제인 아버지 유의륭의 조각된 인형을 궁궐에 있는 함장전 앞에 묻는다. 이른 바 무고(巫蠱)라는 것이다. 이는 비방(秘方)으로 아버지를 죽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아마도 태자 노릇을 23년이나 했는데도 자기가 언제 자리를 이을지 모르고, 또 많은 경쟁자인 동생들이 있는 처지라 자리가 불안해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탄로가 났고, 황제 유의륭은 엄히 꾸짖었으며, 무당인 엄도육과 관계를 끊게 했지만 유소는 여전히 아버지의 눈을 속이면서 엄도육을 보호했다.

생각해 보면 무당 엄도육의 비방을 절대적으로 믿은 결과일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당시의 문화 수준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도 광신(狂信)자가 있는 판이 아닌가?

그러나 유소가 엄도육을 비밀리에 보호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 황제 유의륭은 심각하게 후계자를 다시 세울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황제 유의륭은 태자 유소(劉劭)를 폐하고 그와 함께 한 유준에게 사형을 내리고자 하여 방법을 왕승작(王僧綽)과 더불어 이를 모의했다. 그리고 태자를 폐위하였던 역사적 고사를 찾아보게도 하였다. 이제 황태자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 셈이다.

이를 알게 된 유소는 아버지를 시해하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나가려고 기도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생모도 그러했고, 그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밤중에 유소는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무리인 장초지(張超之)가 밤늦게까지 후사문제를 두고 논의하던 황제를 공격하였다. 황제는 갑작스런 일에 책상을 들어서 장초지의 칼을 막으려 하였지만 헛수고였다. 유의륭이 죽자 유소가 황제에 올랐지만 결국 그의 하극상은 그의 다른 동생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 패배하여 죽었다. 일장춘몽이었다. 유소는 왜 그랬을까? 잘난 아버지 유의륭이 잘 못 기른 탓이다. 자식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알게 하는 사건이다.

'査頓어른'과 '査丈어른'은 엄연히 다른 호칭

과거 전통사회(傳統社會)에서는 사돈 간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았기에 사돈 간의 가족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다. 따라서 호칭의 대해서도 별반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돈가족간(査頓家族間)의 모임도 잦아지면서 호칭을 몰라 당황스러움을 겪는 수가 흔히 발생한다. 특히 방송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의 잘못 된 호칭(呼稱)은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이고 우리의 전통예절(傳統禮節)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

작년 KBS1-TV에서 종영된 일일연속극 '별도달도' 장면에 아버지(김영철씨 분)의 작은 아들 내외가 향후 형수 및 손위동서 될 사람의 친정부모를 일러 '사돈어른'이라 자칭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며느리의 친정 조부모, 딸의 시조부모, 형수나 제수의 친정부모, 자매의 시부모 등과 같이 자기보다 윗세대인 사돈께는 '사돈어른'이 아닌 '사장어른'으로 더 높여 불러야한다. 또 종영된KBS2-TV 아침드라마 '은희'의 극중 최주봉씨가 자기 사위의 형님에게 '사돈'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는 '사돈양반'이라 불러야 한다.

사돈이란 여자가 시집을 갔을 때 여자의 친정가족(親庭家族)과 시댁가족(媤宅家族)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는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관계를 '사돈지간(査頓枝幹)'이라 하여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그 격식(格式)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왔던 것이다. 사돈 간에도 사돈 간의 사행(査行; 사돈 간의 항렬)이라 해서 세대의 상하를 엄격히 가려야하고 아울러 칭호(呼稱 과 指稱)도 엄정해야 한다. 호칭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를 말한다. 사돈의 호칭·지칭은 같은 세대의 동성끼리 즉 양가의 아버지끼리 어머니끼리의 호칭·지칭이다. 동성간의 사돈이라도 나이가 열 살 이내에 차이어야 하고 여자 사돈끼리라도 친숙하기 전에는 서로가 '사부인'이라고 깍듯이 경어로 호칭·지칭을 써야한다. 사돈어른은 같은 세대의 사돈에게 이성간의 호칭·지칭 즉,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시아버지가 친정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칭하며 동성이라도 자기보다 11살 연상인 사돈에게는 '사돈어른'이라고 부른다.

'사돈양반'은 아랫세대의 기혼여성인 사돈을 호칭·지칭할 경우이고 미혼의 남자사돈에게는 '사돈총각', '사돈도령'으로 하고 미혼여성의 사돈은 '사돈처녀', '사돈아가씨'로, 어린사돈에 대하여는 '사돈아가씨' '사돈아기'라고 호칭·지칭한다. 호칭·지칭은 언어생활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다. 올바른 칭호를 사용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보다 명랑하며 품격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花山府院君 宗會長 權貞澤

세월호 특별법 주장들이 알고 싶다

출처 : 네이버 부롤그,동아일보8.25-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철회)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__ 15)공공요금 감면(철회)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18) 단원고학생 직계비속,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여야가 특별법을 놓고 주장이 팽팽하다. 심지어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국회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여,야의 특별법 주장과 유족의 주장을 속 시원히 밝혔으면 한다.

※ 참고

1. 나라를 위해 몸바친 천암함 희생자 (2010년 3월 대통령 이명박)
하사관 이상 : 전사자 3억원, 순직자 1억5천만원
사병 : 전사 2억원, 순직 3천6백만원
2. 대구 지하철참사 (2003년 2월13일 대통령 노무현)
희생자 : 300 여명 사상-보상금이외 위로금 2억원 기타지원 및 특혜 없음
3. 6·25참전용사
생계비 월 9만원, 병원비 60%감면
4. 5·18유공자(연행,구속 이상 사망자)
국가유공자, 교육(대학 수업료면제), 의료, 취업(자녀 3인) 대부지원

바로잡습니다

본지(2014년 8월 1일 제470호 2면) 진천종친회하계단합대회 기사 중 권혁풍 청주종친회장을 전임회장으로 바로잡습니다.